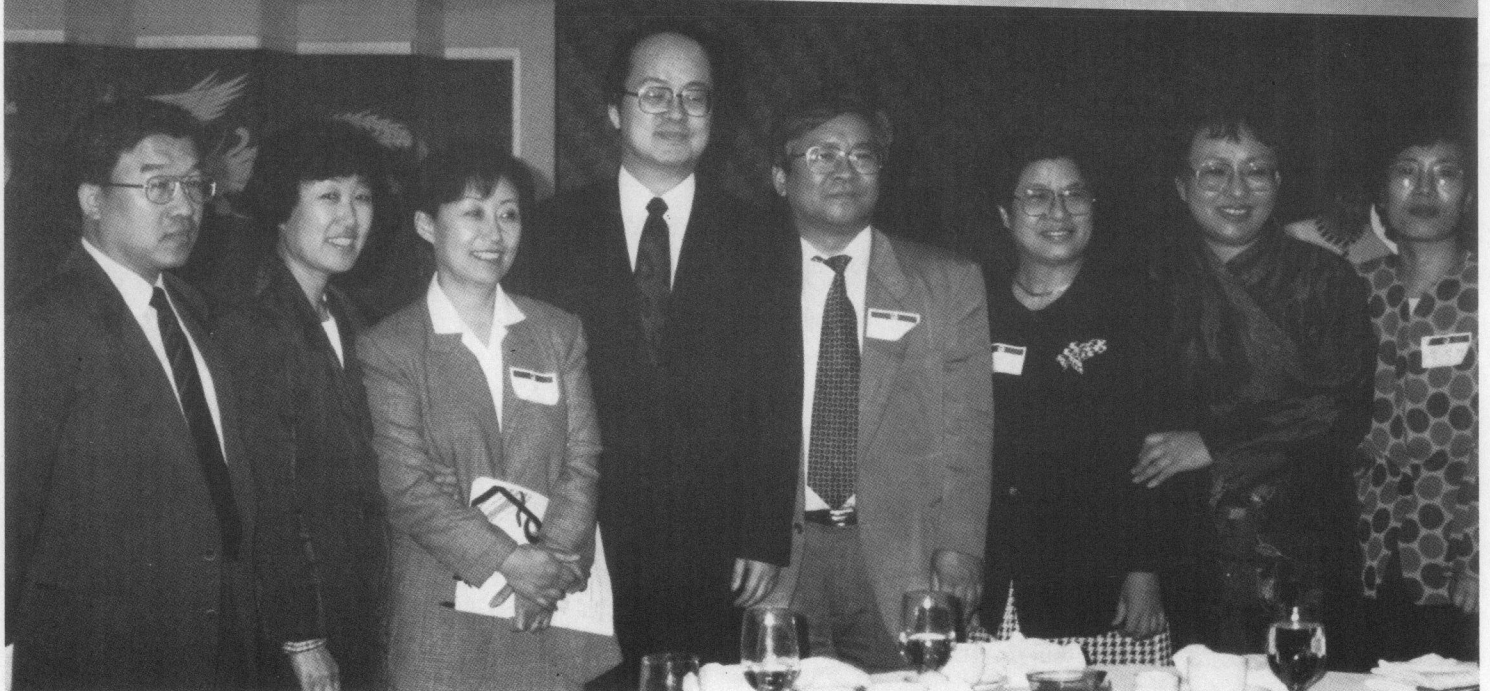


# 나눔터

## 보관용

펴낸곳: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펴낸날: 1994년 8월 31일 / 계간발행 / 주소: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우. 137-600) / 전화: 02)576-7127~8

30년기념 위기센터 · 씬터 기금마련음악회 리셉션  
94. 5. 14(토) 5시30~7시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가야금홀 주관: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위기센터 · 씬터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리셉션에서 내외 귀빈들과 함께

### 차례

이런 일을 했습니다 .....	2	특집:보지도, 말하지도, 만지지도 말라? (최상진) .....	8
이렇게 생각한다(정강자, 권장희) .....	3	생각해 봅시다(정화순) .....	10
여기는 상담실 .....	4	여성계는 지금 .....	11
이렇게 도왔습니다/후유증 .....	5	나눔터 애깃글/지구에 꽃씨 뿌리기(김형경) .....	12
더 좋은 상담을 위하여 .....	6	성문화 읽기(조희옥) .....	13
극복과 치유는 자신을 사랑하는데서 부터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	14
기획 .....	7	인사드립니다(탁선희) .....	15
성희롱, 바로알자			





▲ 「위기센터·쉼터 기금마련 음악회」 공연 중에서



▲ 여름 숙박교육 길에 나서며

### 『위기센터·쉼터 기금 마련 음악회』 성황리에

본 상담소 개소 3주년기념 『위기센터·쉼터 기금 마련 음악회』가 지난 5월 14일 양재동에 있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비가 왔는데도 1천여명이 관람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린 음악회는 위기센터 활성화와 쉼터 마련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 제5기 상담원 교육 25명 수료

12주에 걸쳐(3.31 ~ 6.23) 여성학·상담원 교육과정을 마친 5기 상담원 교육생의 수료식이 교육 마지막날에 있었다. 25명의 5기 예비 상담원이 된 이들은 4주간 상담실습 교육을 마치면 성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즐거운 여름 숙박교육 고양 유스호스텔에서

상담소 여름숙박교육이 지난 6월 25, 26일(1박 2일) 고양 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한국여성개발원의 후원으로 상근자, 상담원, 나눔이, 지킴이 등 상담소 가족 80여명이 참석하여 모두가 하나되는 흥겨운 자리였다.

### 78명의 제2기 지킴이 탄생

4월 29일부터 8회에 걸쳐 실시된 제2기 지킴이 교육이 5월 28일 역할극을 끝으로 수료식을 가졌다. 16명의 남자 지킴이를 포함한 78명의 지킴이들이 탄생하여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위기센터에는 모두 119명의 지킴이가 일하고 있다. 유



▲ 제5기 상담원 수료식을 마치고



▲ 역할극을 하는 지킴이들

## 성희롱이 왜 노동권의 문제인가



정 강 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여성의 삶에 직·간접으로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과 남녀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성규범의 정착과 왜곡된 성문화의 척결이 시급하다는 여성계의 요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직장에서의 성희롱이 심각한 수위에 와 있음을 뒷받침하는 연구조사와 여론은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사후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 사건을 접하고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약 이런일이 자신의 딸이나 부인에게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면 여성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희롱을 경험한 대다수의 피해자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1993년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조사한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 조사」에 의하면 직장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는 모두 77.7%이다. 직장여성

으로서의 정체감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업무 수행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직장내 인간관계에서 소극적 자세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게 되고, 계속 근무의 어려움으로 결근·병가·휴가 신청을 하거나, 이직을 고려한 경우도 나타난다. 가장 심각한 피해는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회사를 그만 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노동의욕 저하등의 영향을 주어 작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면접·배치전환·승진·승급 등 고용조건이나 고용상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과 불이익을 준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의 「평생 평등 노동권」을 위협하고 정신적 충격은 물론 평생동안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

## 외국의 저질문화 유입에 대비하자



권 장 희 (음란 및 폭력성조장매체 공동대책위원회 간사)

지난 5월 미국의 저질 성인잡지 「펜트하우스」의 한국어판 발행에 대한 등록신청이 있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관계부처의 설득으로 신청을 포기했지만, 개방과 국제화를 명분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류의 많은 외국 음란물들이 유입될 것이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외설적 음란문화가 유입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UR의 합의사항도 『그 나라의 풍속과 관련되어서는 압력을 가할 수 없도록』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출판물의 발행

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이지만 현 법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법과 형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도서의 제작·유통·수입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란물에 대한 등록을 현행 법으로도 적법하게 규제할 수 있다.

다음은 출판물의 유통통제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출판은 자유롭게 하되 판매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

서 철저히 규제된다고 한다. 우리는 일단 등록증을 교부받아 발행을 하면 어디서나 판매할 수 있다. 만일 성인용을 구분하여 판매하게 되면 오히려 음란물을 양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통판매를 우편 판매와 성인코너에서 밀봉된 채로 판매하도록 규제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곳에서만 판매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철저히 행정적인 규제를 한다면 음란물의 판매는 현저히 줄 것이다. 만약 양성화가 될 지라도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외국의 저질문화로 우리의 청소년들을 병들게하고 우리사회의 장래를 위태롭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책임의식과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자녀들의 유해한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사회를 건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

일반상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본 상담소는 총 8백 52회에 걸쳐 6백 13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 중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5백 6건이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받은 성폭력에 대한 상담 2백70건에 비해 87.4%나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증가는 4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특별법」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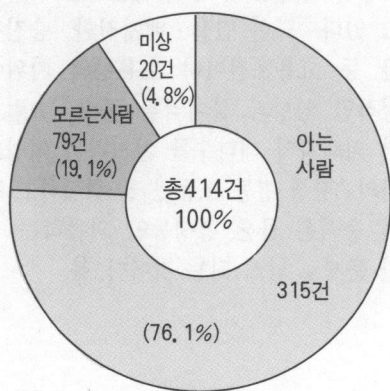
월 18일에 있었던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판결이 끼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기간동안 「성폭력특별법」 시행과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판결에 용기와 기대감을 갖고 고소를 하거나, 또는 고소를 원하는 내담자들이 많았다.

또한 언어추행에 대한 상담이 1월에서 3월사이에는 11건이었던 것에 비해 4월에서 6월사이에는 22건으로 늘어났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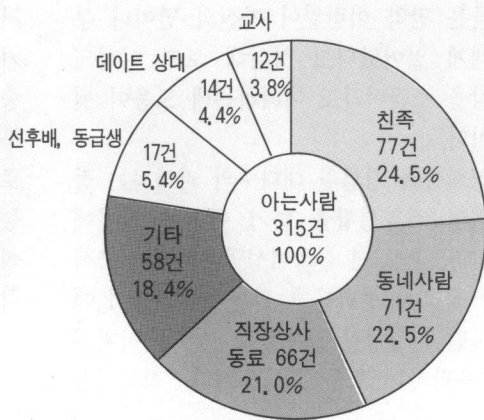
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부각되면서 직장내 언어추행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는 경우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으로 음란전화 발신자를 추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의와 상담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 기간동안 받은 상담의 특성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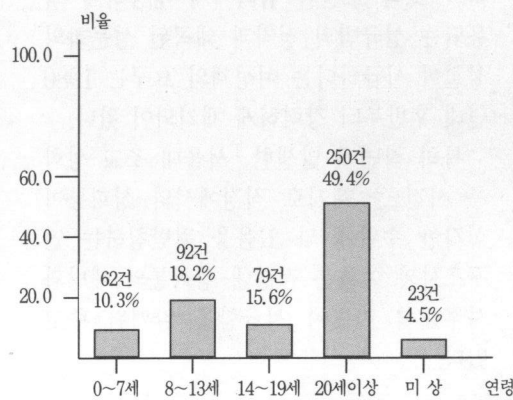
\* 그림 1은 강간과 일반추행에 해당되는 414건만 분석.



〈그림 1〉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림 2〉 아는 사람 분류



〈그림 3〉 피해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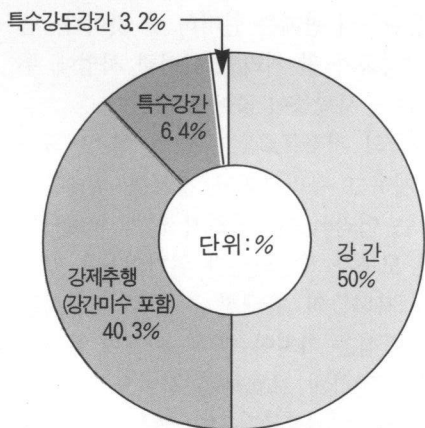
위기상담

94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접수된 위기상담은 총 62건이다. 이것으로 작년 12월 개설이후 총 117건이 접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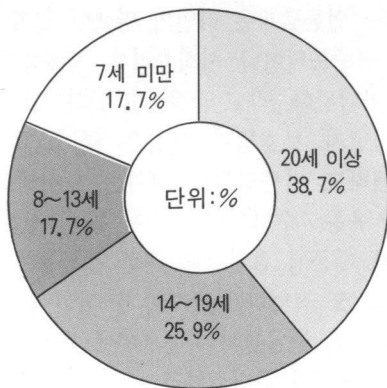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면 강간보다는 강간미

수가 포함된 강제추행 상담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고소 및 신고율은 30.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점차로 위기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피해직후(48시간이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진다. 또한 위기상담의 주요기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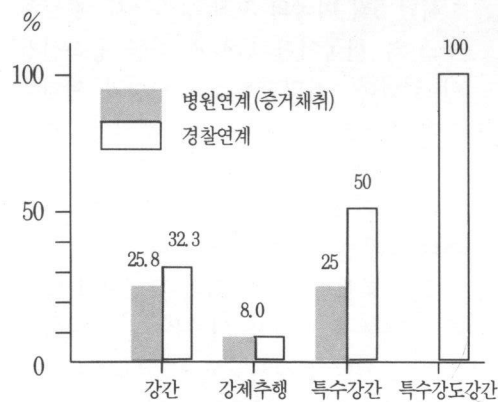
경찰연계와 증거채취를 피해유형별로 조사해 본 결과, 강간강간의 경우 경찰연계보다는 병원연계만을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강간의 경우 증거채취보다는 성병이나 임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연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3〉



〈그림 1〉 피해유형



〈그림 2〉 피해자 연령분포



〈그림 3〉 피해유형별 증거채취

# 후유증

## 피해내용

현재 21세인 내담자는 친척처럼 가까이 지내던 아버지와 외삼촌에게 7세부터 11세까지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 내담자의 부모는 그 사실을 알게되었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담자가 성폭력으로 인해 불안·반항 등 갖가지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가출까지 하였지만, 모든 잘못을 내담자에게 떠넘기고 확대하였다. 그 후 내담자는 미용기술도 배워보고 술집에 나가기도 하다가 10개월 전 우연히 만난 한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고된 가게일과 집안일을 떠맡고 있으면서도 남편이나 시어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늘 욕지거리를 듣고 무시당하는 불안한 상태에 살고 있다.

## 상담진행과정

이 사례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상담으로 석달 동안 10회 이상 전화상담이 이루어졌다. 내담자와 상담원간에 신뢰감은 내담자가 자기 상처에서 스스로 벗어나려는 주체적인 생각과 자신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 동거 중인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자신을 돕지 않는 부모에게 끌려다니고 있다. 남편이나 부모와의 관계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상담원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실제로 받아들이기에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 현재 면접상담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다.

## 상담의 목표

어린 시절 당한 성폭력이 어떻게 어디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

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내담자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 자신을 찾지 못하고 생존해왔다. 그러나 치유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짓밟히고 무시되어온, 그래서 저 깊은 곳으로 쳐박혀버린 자존감의 뿌리를 찾아내어 그 싹을 키우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자존감 회복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가족으로부터의 사랑을 찾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과연 내가 바라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력과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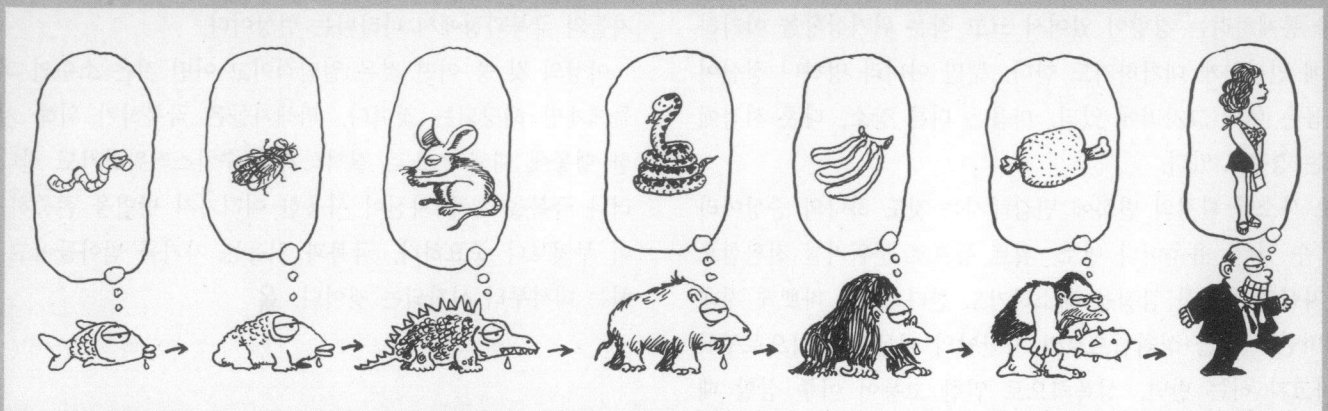
## 성폭력 후유증 상담시 유의할 점

내담자가 그동안 취했던 방법과 행동 중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내담자가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나 내담자의 행동, 생각이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담자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고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때 내담자보다 상담원이 너무 앞서가서 내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은 금물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구조화하여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조망이 가능한 상태에서 내담자가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유

## 나눔터 그림

인류의 발달과 먹이의 변천사

반쪽이



## 극복과 치유는 자신을 사랑하는데서 부터

성폭력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여러 방법들과 기제를 사용하고 시도한다. 그런데 이중 어떤 방법들은 긍정적인 것(성공적인 업무수행 유우머감각 위기상황에 잘 대처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어떤 방법들은 자기파괴적인 유형(절도·약물 복용·거식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행동과 증상을 이해하고 상담원은 피해자의 경험과 느낌, 증상 등에 공감하는 것은 치유과정에 필수적이다.

극복과정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증상들을 정리해 본다.

어떤 피해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애써 자신의 경험을 축소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분노하기보다 용서하고 합리화한다. 또한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아예 그 사실을 망각하기도 한다.

간혹 피해자들은 분열(splitting)을 경험한다. 즉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활과 행동을 하거나 성적 자기에 대해 고통과 배반, 혼란스런 감정을 경험하고 때로는 그러한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예 자신의 육체에 대해 무감각 상태에 빠져버린다.

특히 혼란스런 환경에서 자란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질서와 규칙을 중시하여 틀에 짜인듯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황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크고 작은 위기상황을 야기하고 이에 민첩하게 대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멍하니 정신이 나가 몸은 현재 그자리에 있되, 마음은 다른 장소, 다른 시점에 있는 경우도 있다.

작고 사소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해지는 것도 하나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우머나 냉소, 위트 등으로 분위기를 전환함으로써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기도 한다. 또한 바쁘게 지내고 어떠한 일들을 성취함으로써 지난날의 어두운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반면,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이 아주 심할 때

그 경험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대신 자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 직면하기 보다 도피의 수단을 찾는 경우가 있으며, 청소년의 가출, 잠자기, 독서, TV시청, 공상 등에 몰입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때로 피해자들은 삶이 기적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에서 절도나 도박에 중독되기도 한다.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음식을 마구 먹거나, 반대로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몸을 보기 흉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사람들 하고 가깝게 지내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남들과 사귀는 것을 꺼려하기도 한다. 지나치게 성에 집착하거나 회피하는 것도 피해자들의 극복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상의 것 중 어떤 것은 일반적이고 어떤 것은 소수의 피해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질책하거나 수치스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극복을 위해 자신이 사용한 여러가지 방법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극복과 치유는 자기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

# 성희롱, 바로알자

성희롱이란 단어는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번 나눔터에서는 성희롱에 대해 바르게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기사를 마련하였다.

## 1.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unwelcome) 상태에서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며, 가벼운 언동에서부터 성추행 이전까지의 언동을 말한다. 그리고 성희롱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일반 성희롱·직장내 성희롱·학내 성희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2.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은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에 직장상사·동료·계열사 혹은 거래처 직원 등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성적 언동을 해서 몹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성희롱 중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성희롱과는 달리 성희롱을 당할때 쉽게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장은 자신의 일과 생계가 걸려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더라도 직장내 성희롱은 성희롱을 당한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노동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고용상의 문제이다.

## 3.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 1)고용조건형

성적 요구를 받아 들이느냐 받아 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고용상 이익 혹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2)노동환경형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굴욕적이고 불쾌한 직장환경을 만들어 정상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방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외국에서의 법적 대책

미국에서도 성희롱은 70년대 초반까지는 개인간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76년 성희롱 사건이 민권법에 저촉되는 고용

상의 성차별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법적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86년에는 연방 대법원 판결로 가해자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실히 인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용평등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ttee)는 80년 「성차별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고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공식적으로 정의하였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립된 해석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노동조합, 정부 등의 성희롱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지침이 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는 92년에 별다른 특별법 없이도 민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서는 직장내에서 근로자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하거나 노무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5. 남은 문제들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희롱은 단순한 개인끼리의 친근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고 나아가 여성이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노동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작업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희롱이 발생했을때 가해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그리고 국가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지 이제는 정부측에서 성희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

# 보지도, 말하지도, 만지지도 말라?

- 서울대 조교 성희롱 판결을 둘러싼 매스컴 태도 분석

최 상 진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

「3불시대」, 「과유불급」, ... 자칫 새시대 새풍토를 위한 캠페인 문구처럼 보이는 이 표어들은 지난 4월 우조교의 성희롱 재판 승소 이후 모 일간신문에서 내보낸 칼럼들의 주제로,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는 매스컴의 시각을 대변해주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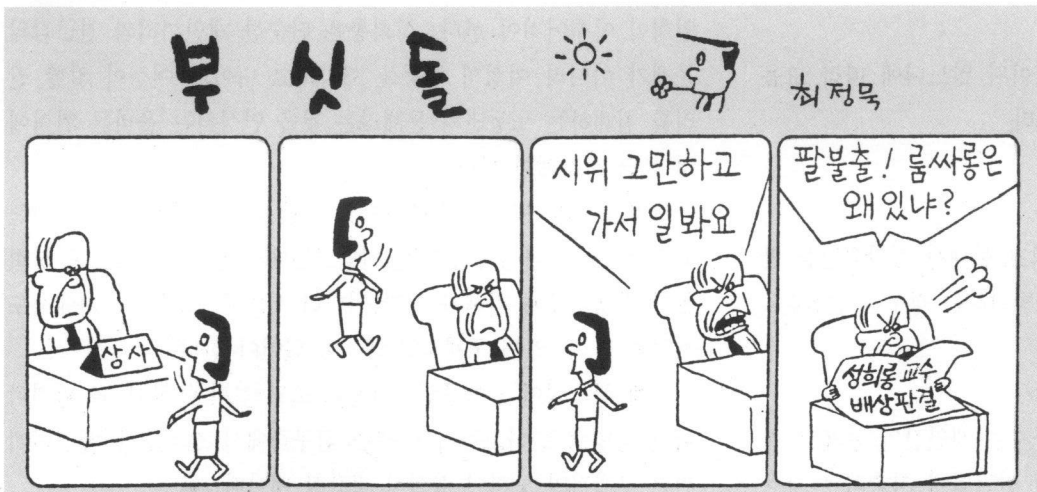
『보지도, 말하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이상한 시대』, 『묵시적 동의 없는 상습 성희롱이란 있을 수 없다』, 『서양식 잣대로 우리 풍토를 잴 여론재판』이라는 주장들은 객관성, 공정성, 국민계도를 지향한다는 매스컴들의 태도가 과연 그러한가를 의심케할 만큼 편파적이었다. 4월 18일 판결이 확정되어 소위 「성희롱」에 썩기가 박힌 이후 일주일 동안 6대 일간지에서 이 판결과 관련해 다루었던 보도기사 11편과 해설기사 8편, 컬럼 및 사설 9편, 독자투고 8편 등 36편의 자료와 4단 만화 11편 등 총 47편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성희롱」, 「성폭력」 등 성문제와 관련된 매스컴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는 분명해진다.

우선 보도기사는 성희롱 사건의 판결과 관련된 것이 8건이었고 2건이 재판부가 희롱전화에 시달린다는 것이었으며, 한 국갤럽의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보도가 1건이 있었다. 해설기사는 남성위주 성문화를 비판한 기사1건, 성희롱 유형과 대책에 관한 기사 2건 등 여성의 책임을 묻는 기사 1건 등 5건이 중립적이거나 남성중심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독자투고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아 판결에 지지를 보내는 것 5편과 매스컴의 태도를 비난한 것 2건, 남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성희롱에 관한 입장에 관한 1건이 있었다. 한편 4단 만화는 모두 성희롱 판결을 남성들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바라보았으며, 칼럼은 단 2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쓰여진 것이었다.

위신문에 따르면 성희롱 처벌에 대한 남성(82.5%)과 여성(66.3%)의 견해 차이는 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그대로 드러낸다. 묵시적 동의가 없는 상습 성희롱이란 있을 수 없다는 주

장이 이를 대변한다. 여성의 『아니오』는 『글썩요』이고 『글썩요』는 『네』이며 『네』라고 하는 여자는 미친 여자라는 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언어는 남성에게 의해 심하게 윤색되고 왜곡되어 있다. 『아니오』라는 목소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 그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서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 않음이 곧 묵시적 동의가 되는 것의 책임을 여성에게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가진 자의 논리에 불과하다.

▼ 1994년 4월 19일자 경향신문에서





“  
 보다 구조적인 차원의 「노동권 보장」이 아닌  
 개인적 수준의 「성」을 문제삼음으로써  
 「성희롱」을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남겨 놓았다.  
 ”

이번 판결은 「성」을 문제삼아 개인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재판의 의의는 매우 높다. 그러나 매스컴들은 보다 구조적인 차원의 「노동권 보장」이 아닌 개인적 수준의 「성」을 문제삼음으로써 「성희롱」을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남겨 놓았다.

한편 충격받은 남성과 환영하는 여성으로 성희롱을 남성일반과 여성일반의 대결구도로 보는 매스컴의 논조는 남성의 입장에 동조하는 여성을 등장시킴으로써 여성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몰아붙이고 있다. 가정주부가 남편을 배웅하면서 「눈조심, 입조심, 손조심」이라고 걱정을 하거나, 직장에서 여성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시위」그만하라는 상사, 3불운동을 실행하는 동료직원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다수 남성이 피해자임을 시사한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 「룸싸롱이 있는데, 여직원을 건드린 팔불출」, 「손장난이 심하니 조심하게」라는 비평을 통해서 성희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하고 이를 문제삼는 여성들이 사회적 부적응자인 것처럼 제시한다. 이와같은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부재를 당연시 하는 매스컴의 태도에서 구조적인 비판과 이에 대한 미래적인 전망이 나올리 만무하다.

가장 큰 문제는 성희롱을 거리낌없이 행해온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조차 인정을 하지 않는 것에 있다. 성희롱은 장난이지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까지 매스컴에서 만평등 의견 기사를 통해 내린 해석이다. 이는 희롱이라는 말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 일방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고, 그 행동을 사회적 준거틀이라고 불리우는 매스컴에서 지지하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여성을 모욕하고 능멸할 자격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여성을 성의 객체 즉,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태도라 할 수 있다.

### 청개구리 매스컴



### 야로시 오류



“  
 무엇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매스컴은  
 대중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선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절실한 반성이 필요할 때다.  
 ”

『법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관행상 모든 인간속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법을 통해서라도 인간의 동등함속에 여성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법의 도움을 얻으려 했던 우조교에 대한 매스컴의 시선은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으로 일관되었다. 당하는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 모욕으로 느끼는 한, 희롱을 별것 아니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보편적인 준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보수적 색채를 유지하고 있는 매스컴이 소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 소수의 목소리가 판결을 지지하는 다수를 억압하는 것은 보편타당함이라고 볼 수 없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의견처럼 무엇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매스컴은 대중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선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절실한 반성이 필요할 때다. ♪

# 「청소년기의 자위

정 화 순 (2기 상담원)

자위란 성교 이외의 방법으로 오르가즘을 얻도록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 자위(masturbation)라는 말은 그리스어에 masturbari(몸을 더럽힌다는 뜻)라는 말에서 왔는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 왔다. 특히 성경에서 「오나니즘(onanism)」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자위를 강하게 억눌러 왔다.

동양에서나 서양에서 역사적으로 노동력의 원천인 생식의 측면이 강조되어 왔고, 따라서 자위는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늘날 조금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자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여전히 특히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의 자위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또한 성적인 기능과 느낌을 배우고 향유하는 존재라고 할 때, 자위는 인간이 성적 성숙을 이루는 주요한 방법이며 이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여기서는 인간이 태어나서 사춘기를 거쳐 성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자위를 주로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80年代 후반 독일의 경우 청소년(17세까지)의 자위 경험은 93%, 청소년의 자위 경험은 50%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한국교육개발원 성교육기초자료」에 의하면 남학생의 60% 여학생의 6%가 자위를 한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자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성적인 면에 있어서 남자에겐 허용적이고 여자에겐 억압적인 사회통념속에서 남자의 자위는 본능이고 필요불가결한 측면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여자의 자위는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한다.

특히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여자아이들은 하이틴 로맨스 소설을 주로 읽고 스타나 남자선생님에 대해 제한된 관심을 쏟는 등 성적인 면에서는 육체를 무시하고 정신적인 면만을 극도로 추구한다. 그러다가 결혼 후에 여성은 비로소 육체를 갖는 성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유년기 이후부터 결혼까지의 십몇년 동안 과장되게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실제로 YMCA 청소년 상담실에 의하면 총 상담 중 남학생의 자위상담은 약 22%이고 여학생의 자위상담은 3% 전후이다.

가령 자위를 하게 된 계기를 보면 첫째, 자기 몸에 대한 자연스러운 깨달음으로 인한 것이다. 『신체반응에 의해 웬지 자극이 와서 만졌더니 쾌감이 왔다』 둘째, 외부적인 자극으로 볼 수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그 자극으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또 소설 등에서 자위가 나와서 해봤거나 남자친구와 성적 접촉 후 해 본 경우가 있었다.

또 청소년은 사정을 자위로 생각하는데 비해 청소년은 자위로 생각하는 폭이 넓었다. 가령 자신의 성기에 손이나 기구 등을 넣는다든지, 성기를 비빈다든지, 유방을 성감대로 만지는 것 등을 모두 자위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을 볼 때 이들은 성적인 면을 학습하면서 성숙해 가고 있는데, 즉 성적부분의 신경전달체계가 잡히면서 성적인 자극으로 오르가즘에 다다른다는 생각을 몸으로 머리로 학습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담해 온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보다 더 큰 죄책감을 보인다고 하는데, 자신이 추한 여자가 아닌가하는 갈등을 겪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얼핏 자유로운 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청소년들이 성적인 존재로 올바르게 성숙할 수 있는 기본단계가 무시되어 그들이 이후 겪을 갈등과 고민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기 청소년기에 있어서 정상적인 자위는 인간으로서 성적 성숙을 위한 과정 중의 한 방법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에 있는 성적인 감정과 기능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긍정적인 방법이다. 다만 자위의 고정된 습관화가 나중에 성적 파트너 또는 배우자를 배려하고 교류하지 못하게 하는 성이기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오늘날 과거 어느 시대보다 결혼 생활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보된 상황에서 자위는 자기 관리를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기도 하다. ☺

## 1994년 5월 27일 ~ 7월 14일

###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축하회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정책을 심의 감독하고 입법 기능을 할 여성전담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정의원 : 민주당)가 신설되어 축하 모임이 있었다. 이 자리는 92년말부터 특위 신설을 건의했고 국회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활동을 했던 여성단체들이 마련하였다. 특위 신설은 이제까지의 여성문제에 대한 입법 청원이 있을 경우 반영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여성지위향상의 일대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조세형의원을 비롯한 13명의 남성 국회의원과 4명의 여성의원인 힘을 모아 남녀가 같이 여성문제를 풀어 간다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

### 「직장내 성희롱」 정부 여성계 같이 풀어간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공동대표 최영애, 강병원)는 「직장내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공청회를 가졌다. 정부측에서는 정무제2장관실(이봉화 사무관), 노동부 부녀소년과(최기동 사무관), 경제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오문환과장), 노동계에서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채운석 부위원장)에서 나와 처음으로 정부와 여성계가 「성희롱」 문제를 같이 풀어 보고자 했다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6월 27일 기독교회관)

### 여성계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 준비를 위해 활동 박차

95년 지자제선거를 위한 움직임들이 각 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다. 91년 0.9%라는 의석확보에 그친 것을 거울삼아 20% 여성공천 할당제 요구에 합의를 본 여성단체는 「할당제도입을 위한 여성단체연대」를 발족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이연숙회장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이미경대표를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여성단체가 연대한 지자제를 위한 활동은 여성의 권리를 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7월 8일 한국여성개발원)

### U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각 여성단체 행사활발

#### □ 한국여성민우회 『열린가족 이야기 한마당』

민우가족이 모두 모여 평등하고 열린가족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 있었다. 즐거운 노래공연, 재미있는 촌극과 함께 이해와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고 자리였다. (5월 21일 예음홀)

#### □ 한국 가족상담 교육연구소 개소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한국 가족의 문제 중 부부관계를 진단해보는 학술세미나가 있어 눈길. 한국 가족상담 교육 연구소(소장 유영주)가 개소 1주년 기념 행사로 가족생활에 따른 도시가족의 부부관계 등의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6월 2일 서울대)

####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상담 심포지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내구타, 강간 등 성폭력문제를 여성중심의 관점에서 상담하고 해결을 모색해온 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에서는 그동안의 여성상담이론을 정립하고 토론하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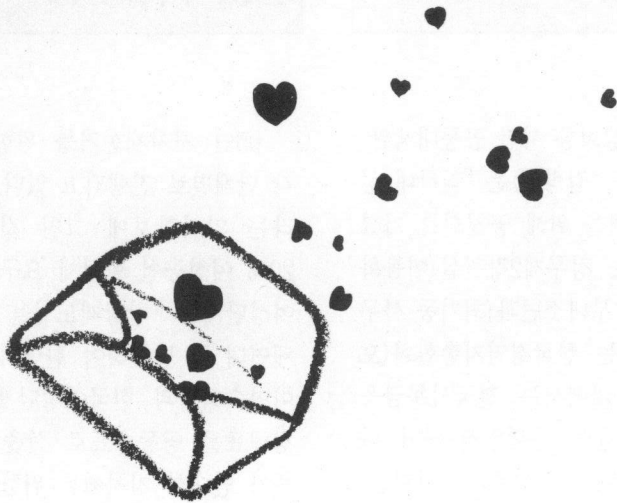
상담심포지움을 마련했다. (6월 3일 기독교연합회관) **유**



▲ 직장내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공청회

# 지구에 꽃씨 뿌리기

김형경 (소설가)



그는 염세주의자였다.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에 빠지곤 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식도락가가 아니어서 밥을 먹기 위해 산다고도 할 수 없었다. 경제적인 감각이 뛰어나거나 물욕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돈을 벌기 위해 산다고도 할 수 없었다. 한갓 물거품 같은 명예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던만큼 살아가는 의욕도 없었다. 그는 늘, 자신이 금방이라도 코를 막고 숨을 멈추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리라 생각했다.

그가 보험에 들었던 것은 순전히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해서였다. 그 아주머니는 아주 집요하게 그의 회사를 방문해서 그에게 불펜이나 명함꽃이, 손거울 같은 자잘한 선물을 했고 그때마다 컴퓨터로 뽑은 그의 사주나 바이오그래프, 이달의 운세 따위를 함께 놓고 갔다. 그것은, 짧은 순간이나마 그에게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잊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보험설계사 아주머니의 집요한 노력에 감복하여 보험을 들었다. 이름과 주소를 적고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러다가 그는 보험 상속인을 적는 난 앞에서 잠깐 당황했다. 그가 죽은 다음에 누가 이 보험을 타도록 할 것인가를 적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그는 이른바, 노총각이었던 것이다. 여러 형제의 막내였으므로 그가 성장했을 때는 이미 부모도 이 세상에 없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보험 상속인 난에 사회환원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보험 아주머니는 구체적으로 적을 것을 요구했다. 사회라는 게 얼마나 크고 애매한 개념인 줄 아느냐며 보험 아주머니는 그에게 사회학 강의까지 하려 들었다. 그는 다시 고민하다가, 마침 그의 동네에 있는 노인정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는 보험 상속인 난에 초암노인회라고 적었다. 그가 죽은 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보험금을 물려받은 그 노인회에서는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을 하자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무슨 일이든,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상상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보험을 든 이후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상상을 더 자주 했다. 노인정의 노인들은 대부분 연금을 받고 있을 테니까, 차라리 보험금을 어린이집 같은 곳에 넘

길까? 아니면 매맞는 남편들을 위한 모임에 기부할까? 그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죽음은 그의 아주 가까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우편물을 하나 우송받았다. 발신인은 보험회사로 되어 있었다. 편지 봉투를 뜯자 작은 봉투와 함께 깨끗하게 인쇄된 편지가 나왔다.

『금번 저희 회사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더불어, 동봉하는 꽃씨는 저희의 감사의 표시로 받아 주시고 잘 가꾸어 매년 여러 집으로 꽃씨를 퍼뜨리도록 하면 하는 게 저희의 소망입니다.』

그 글을 읽었을 때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꽃씨를 뿌려 꽃을 가꾸고 그 꽃의 씨앗을 받아 매년 여러 집으로 퍼뜨리라는 글은, 그에게 그 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세세만년 살아 있으라는 주문처럼 들렸다.

아,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그건 결국 꽃씨 뿌리기일 것이다. 인류가 이토록 오래 지속되어 온 것은 바로 종족을 보존하려는 그 꽃씨 뿌리기의 결과였을 것이다. 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먹고 짐작되어 지하철을 타고 하루에 한 번씩 배설을 하는 것도 결국 제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사과 껍질에 흙을 담아 소중한 꽃씨를 심으며 그는 생각했다. 자신의 또 다른 꽃씨도 뿌려야겠다고. ☺

## 편집자주

김형경씨는 83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 공모에 시당선, 85년 「문학사상 신인상」에 중편 「죽음잔치」당선으로 등단하였고, 93년 국민일보 1억원고료 장편소설 공모에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로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당선되었다.

# 신에게는 딸이 없다

조 희 옥 (4기 상담원)

안드레아 드워킨의 소설 「신에게는 딸이 없다」(원제 : Mercy)는 「강간」의 여러 유형을 다룬 작품으로 사회 곳곳에 깊숙히 박혀있는 성적 억압을 고통스럽게 파헤치고 있다. 요사이 유행하고 있는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책들과는 달리 성폭력이 얼마나 섬뜩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작가 노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강간이란 말의 법적 정의는 『완력에 의한 성관계 혹은 그런 위협에 의한 것이나, 여자가 동조할 의사가 없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성관계』이다. 그러나 작가는 강간의 경험과 형태는 개인차만큼 다양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따라서 이 소설에서 작가와 동명인 주인공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강간을 경험한 모든 여성의 집합체라 볼 수 있다.

저자는 아홉살 소녀였을 때 혼자 영화보러 가서 겪은 당혹스러운 성폭력을 시작으로 결혼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계속되는 강간에 대해 이런 경험들은 결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가 주장하듯 주인공의 이름인 「안드레아」는 남자다움이나 용기를 뜻하는 말이지만, 우리 사회체계 안에서는 「암컷은 암컷일 뿐이다」라는 본질이 우선할 뿐이다. 그래서 저자는 기존의

남성들의 언어 습관에 도전하면서 이제까지 막연하게 나쁜일로 여겨져온 성폭력의 현실을 가슴으로 인식되는 새롭고 강력한 언어를 만들어 내고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정한 여자의 실존을 위해서.

즉 무력하게 「나쁜일이 일어난다」는 개념에서 여성의 삶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성적 유대와 정신적 존엄성을 새롭게 확인하고 강간이라는 범죄는 섹스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임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위의 이런 점들을 인식하고 표현하기까지의 저자의 긴 장정은 책을 읽는 우리를 너무도 고통스럽게 한다. 어릴때 유대교 집안에서 자라 주일학교등을 다니면서 안 그 유일한 신은 남성들의 신이고 여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너무도 잔인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들에 강렬한 의문을 느끼는 것을 시작으로 비참한 현실안에서 저자가 혼자서 풀어보고자 방향한 그 길은 너무도 힘든 과정이었다. 그러나 종내는 이런 과정을 뛰어넘고 인식의 전환을 이뤄 내면의 힘을 새롭게 표현하게끔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은 고통스런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새로운 인식의 힘으로 상승한 혼연일체된 여성의 실존서라고 할 수 있겠다. ♀

## ● 비디오

어린이 성폭력 예방 - 내몸은 내가 지켜요

**비디오를 구입하려면.....** ● 가격 : 18,000원 ● 상영시간 30분  
● 대상 : 유치원, 국민학교 학생

1.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접 구입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료 2,000원을 포함하여 20,000원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입금 확인되는대로 등기 우송해 드립니다.

**온라인 구좌번호** / 국민은행 : 009-01-1176-632    농협 : 137-01-194301  
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구입문의 : ☎ 576-7127~ 8 ♀



♣ **상담 사례 연구 모임**

실제 상담사례를 가지고 상담의 효과, 내담자와의 관계, 효과적인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에 모여 토론하는 모임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계·법조계·의료계의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통해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 **더 좋은 상담을 위한 모임**

일년 이상 상담을 받은 상담원을 중심으로 상담사례를 검토하여 말 그대로 「더 좋은 상담」을 하기위해 둘째·네째 화요일에 모임을 갖는다. 상담의 유형별 연구·위기 상담·상담지침·후유증 상담지침·사례 취합·분석틀을 만드는 등 상담원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 **상담 지원 위원회**

내담자 지원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상담부에서 결성한 상담지원위원회는 내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법적 지원을 하고, 지원의 내용과 한계를 분명히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위원회는 본 상담소 자문 위원 중 변호사 2인(조영환, 박찬운)과 산부인과 전문의 1인(박금자), 상담부장, 상담총무, 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성문화 읽기**

소설·영화·연극 등에 나타난 왜곡된 성문화와 여성문제를 분석·비판하고 나아가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상담원들의 모임이다. 매달 첫째주 토요일에 10명의 구성원들이 모여 작품에 대한 시각을 주변 여성들의 일상적 삶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는 비평 시간을 갖고 있다.

♣ **원서 읽기 모임**

성과 여성에 관한 국제적 이해를 높이지는데 뜻을 두고 상담원 5명이 출발한 이 모임은 2주에 한번씩 모여 원서의 해석과 토론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사회적 성역할을 재조명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나눔사랑**

묵묵히 성실하게 사무자원활동을 하는 나눔이들이 매달 둘째주 여성문제와 관련된 비디오를 관람한 후 소감과 더불어 진지한 토론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잘못 인식되어진 여성에 대한 시각들을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모임이다.

♣ **법정지원팀**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정동행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해주고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관점을 바로 잡아가는 모니터 모임이다. 2주에 한번씩 모여 법률에 대한 교육 재판 참관을 한다.

♣ **지성인(知性人)**

억압받는 여성의 성폭력 부분만이 아닌 좀 더 폭넓은 사회속의 성(性)을 알고 배우기 위해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열리는 지킴이들의 소모임이다. 냉철한 이성과 끈끈한 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 **볼링 모임**

상담소 가족들의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까지 지킨다는 취지하에 매달 셋째주 일요일에 모임을 가진다. 볼링이라는 활동적인 운동으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한다면 힘든 지킴이 활동도 거뜰해지지 않을까하는 것이 볼링모임의 의의이다. **유**



▲ 진지하게 토론하는 성문화 읽기 구성원들



▲ 스트라이크! 볼링모임을 마치고

## 『저도 상담소 식구랍니다』

탁 선 희 (후원회원)

유난히도 더운 여름이다. 이 여름에 나눔터 기자가 찾아간 곳은 주부 탁선희씨 댁으로 후원회원으로서 우리 상담소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다. TV의 한 여성프로에서 상담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침 이 곳에 관계하는 친구가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해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직 어린 두 딸을 키우느라 짬을 내기가 어려워 직접 몸으로 뛰면서 도와 주지는 못하지만 힘 닿는 한 조그만 도움이나마 주고 싶어 후원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남편도 그의 이러한 뜻에 지지를 보내면서 후원금을 내려 대신 은행에 가는 등 도움을 준다고 한다.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어린이 성폭력의 심각한 현실이 더욱 걱정스럽다는 그는 예방을 위한 올바른 성교육 필요성도 절실히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나 직접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보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어려움을 털어 놓기도 했다.

상담소의 활동은 주로 나눔터를 통하여 살펴 보는데 나눔터가 올 때마다 재미있게 읽는다고 하면서 「지면을 좀더 늘리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초기 후원회원으로서 3년 남짓한 상담소 활동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모두들 열심히 일



해 주셔서 고맙구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현재 상담소에는 150여명의 후원 회원들이 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격려를 아끼지 않는 후원회원들이 있기에 상담소가 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이런 분들이 있

는 한 「성폭력 없는 세상」이라는 우리의 바람도 그리 먼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상담소 식구임을 잊고 지나치기 쉬운 후원 회원이라는 커다란 존재를 인터뷰를 마치고 그의 집을 나오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

### 나눔터 알림판

##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규 회원

김주필, 김중구, 남정현, 박선미, 윤애리, 정동철

#### ●신규 후원회원

김창욱, 박순주, 이성은, 이진상, 전인선

#### ●신규 나눔터 회원

노미애, 박세영, 이금아, 최소원, 한수동

#### ●기부금 내주신 분

김진서, 김현달, 김홍남, 김효성, 손덕수, 심창교, 이미경, 이효재, 조영환, 연대 심리학과 학생들, 이대 기독교학과 동창회

#### ●책 기증해 주신분

김미숙, 도서출판 예음, 배병주, 삼진기획, 창작과 비평사, 쉼어사, 한국여성연구소

#### ●물품 기증해 주신분

연민이 - 가스 버너

#### ●독자투고를 마련했습니다

『나눔터』는 독자 여러분이 함께하는 나눔의 공간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성문화 등 성에 관련된 주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를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열린 나눔터에서 독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 :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나눔터 담당자앞(137-130)  
문의전화 : 576-7127~8, FAX:576-7127

#### ●바로잡습니다

지난 11호 『나눔터』에서 본 상담소 간행물로 제시되었던 자료(14쪽)중에서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은 본상담소가 「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 위원회」에 소속되어 공동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침묵에서 외침으로』 역시 본 상담소가 같이 하는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대책위원회」에서 함께 만든 것임을 바로 잡습니다.

만든이 : 김영아, 연민이, 류한경, 이계중, 이규화, 장윤경, 최혜선

#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 ■ 상담전화

일반상담: 02) 529-4271~2

위기센터: 02) 573-1888



## 유한국 성폭력 상담소

일반상담: 02) 529-4271~2

위기센터: 02) 573-1888

법률 · 의료 · 심리상담

강간을 비롯한 성추행, 성적희롱, 음란전화 등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정신과의사·산부인과 의사·법조인·경찰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일반상담 : 월 ~ 금, 오전 10 - 오후 5시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위기상담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24시간

-면접상담 : 화, 목, 오후 2시 - 5시

-서신상담

## 여러분의 조그마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 **상 담 원** :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여성학 교육 / 상담원 교육)을 수료하면 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 **나 눔 이** :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보조, 자료정리, 번역, ...
- **위기센터지킴이** : 위기센터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 상담원, 병원, 경찰에 연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물 품 기 증** :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 **후 원 회 원** : 후원회원이 되면 소식지 「나눔터」와 자료들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상담소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비는 고통받는 피해여성들을 위해 쓰입니다.

## ■ 온라인 구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성폭력 상담소

농협: 037-01-194301    성폭력 상담소

## 소식지 「나눔터」와 함께 하세요!!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1년 구독료 5천원을 위의 온라인 번호로 납입하신후 본 상담소에 주소를 알려 주시면 계간 [나눔터]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